

2018년 11월 6일, 제주시 월평동 월평동경로당, 이현정 조사.

김양언(남, 1940년생, 제주시 월평동)

- 제주시 월평동(다라콧)에서 태어나 월평동에서 11대를 살아오다가 제주4·3사건 때 제주시 화북동으로 피난하여 6년 간 거주하였다. 1954년 고향 마을이 재건된 뒤 돌아와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다.

• 줄거리: 서귀포시 남원읍에 경주 김씨 선묘터인 육반드기왓은 매우 좋은 명당 중에 하나였다. 경주 김씨 집안의 머슴은 명당터를 알아보는 신안을 가지고 있었다. 주인은 머슴에게 명당자리를 알려달라 했으나, 머슴은 명당을 알려주면 자신이 죽게 될 것이므로 집주인에게 말하지 않았다.

머슴이 아는 명당은 벌허리라는 곳으로, 이곳에 묘를 쓰면 벌들이 공격해 와 죽음에 이르기 때문이었다. 집주인은 자신에게 명당을 알려주어도 머슴이 죽지 않을 계책이 있다며, 독 안에 들어가 있으면 벌의 공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. 이를 믿은 머슴은 주인에게 명당자리를 알려주고 독 안에 숨었으나, 벌들이 무리지어 달려드는 바람에 독이 깨져 죽고 말았다.

[조사자] 제주도에 제일 좋은 터가 어디렌 헹니까?

[제보자] 경현디 일 사라, 이 영실, 삼 개미목, 뭐 저 일 사라, 이 영실, 삼 개미목 또 사는 모르고. 윗섯 번째는 저 남원면 수망리 가민 육반드기왓이라고 있어요. 경주 김집에서 썻다고 해서 그 전설로 나가 인제 것도 들은 말인데. 그 무슨 말이냐면은 “그 명산을 보는 것은 정시라는 사람이 꼭 보는 게 아니고, 이제 그 유명한 저 뭐주께 신이 부뜬 사름이 보는 거다.”

해가지고 경허니까. 그 말은 내가 쯤 그 집안에 내력으로도 듣고, 거기는 나가 저 훈 이십 이삼 세에 그 묘를 훈 번 본 적도 있어요. 지나다가 내가 그디 강. 그게 왜 그랬냐믄 그 말로 들을 적에, 그디 사는 집주인 머슴이 그 산터를 봇다는 거여. 산을 봤는데

“좋긴 허나, 절대 안 그르쳐 준다.”

“무사냐?”

“나는 이 산을, 그 못자리를 그르쳐 주면 그날 나는 죽으니까. 내가 어떻게 얘

기허겠소.”

허니까

“절대 죽지 안하게 헤 주겠다.”

경허난

“어떻게 허면 뛰냐?”

그 벌허리라고 헷어. 벌, 벌 형태란 거여. 경현디 그러믄

“저 도기에 딱 닫으믄은 안 죽는 방법은 독. 독안네 이제 가두와서 췄뚜껑, 솟 뚜껑으로 딱 덮엉 고만히 그 안네 앗았으면은 왜 죽을 리가 있냐?”

거 이치에 맞거든? 근디 벌이 이제 그다가 산털 빵 산을 쓴난. 벌이 나와서 독을 깨여서 그 사름이 죽었다는 전설이 있어요. 벌이 그냥 팍 뎅이차 나와서 그 산 쓴 후제 그냥 날라와서, 그 독을 께엿다던 그 전설이 잇었어. 그 윗섯번째 혈이 그렇게 뛰었다는거, 육반드기왓으로.

지금도 그거는 저 남원면 가믄 저 경주 김집이서 그 산을 썼다고 허거든. 거난 그 묘가 멧 대 묘지 몰라도, 여하튼 경주 김씨 허믄 아주 뭘로 해요. 거난 산을 딱 제주도에서 저 시 편을 나 얘길 했는데, 나는 그저 일 사라 이 영실 삼 개미 목 뭐 이추룩 헌디 그로 후제는 잘 모르곡.

지나다가 그 우린 어린 때 들은 말뿐이난, 그 어디 내보단 헌 십 혼 세 설 우잇 선배님이영 그디 옛날은 우마를 키우니까, 그곳을 갔어 가니까. 이게 저 남원에서 경주 김씨 수망리 그 저기가 경주 김씨에서 유명한 산이라고. 이거 육반드기왓이라고 헤서 여섯 번째 혈이었다 허는 산이다.

그 선배가 춤 그찌 다니다가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걸 알았지, 다른 거에 관심을 안 뒀죠.

- 핵심어: 풍수, 명당, 육반드기왓, 경주 김씨, 머슴, 산터, 벌허리, 벌, 독, 혈, 수망리, 솟 뚜껑(솔뚜껑)